Credit Weekly

| 크레딧 | 조수희 | shcho@ls-sec.co.kr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 (미국 관세 위법 판결, 카드채 메리트 등)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기예상 시나리오로 국내 크레딧 시장은 큰 반응 없음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함. 그러나 동 판결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이지 현 행정부의 여타 관세 부과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어서 관세 리스크는 지속. 또한,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15% 추가 관세 부과도 발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시장에서 예상하던 상황으로 국내 크레딧 시장도 큰 반응은 없는 모습.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및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 거론 등으로 달러 약세 보이는 점은 원달러환율 상승 압력 완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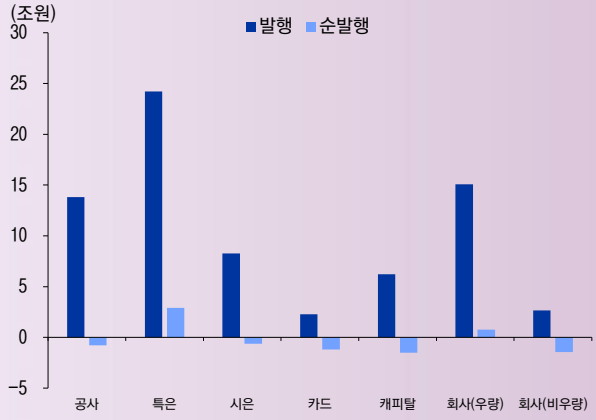
2월 둘째 주 이후 그간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 하향 안정화, 신용 스프레드 확대 진정 국면

2월 둘째 주 BOK 관련 인사의 "국고금리 상승 과도" 발언 등 구두 개입의 영향으로 국고채(3Y) 금리 3%대로 하락, SK하이닉스의 채권투자(1조원) 소식, 투신의 여전채 순매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 하향 안정화된 가운데,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 추세도 진정되는 모습.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형성, 원달러환율의 상향 압박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번주 금통위 이후 국고금리 하향 안정 기조 지속시 신용 스프레드(3Y) 확대 압력 둔화 전망.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 잔재로 공사채 및 카드채 스프레드 확대 폭 큰 편으로 상대적 금리 메리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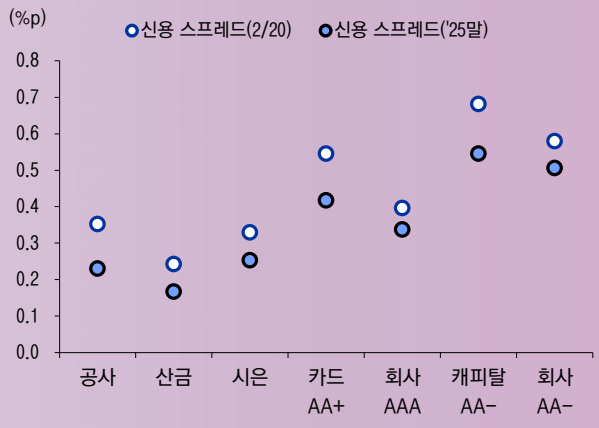
크레딧물 중에서도 최근 공사채 및 카드채 스프레드 확대 폭이 타 섹터 대비 큰 편. 공사채는 국고채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한전, 주택금융공사 및 MBS, 토지주택공사 등의 발행 확대로 최근 1달간 신용 스프레드 확대. 공사채 및 특은채 등 초우량물 공급 확대에도 국고금리 안정화시 캐리 매력 부각 예상. 한편, 최근 카드채 공급은 제한적으로 '26년 들어 순상환 상태이나, 전년부터 지속되는 펀더멘털 관련 이슈(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둔화, 수수료 규제 이슈 등), '25년 11월 이후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의 여파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 확대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 라이센스 사업인 전업카드사는 신용등급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캐리 확보의 기회로 판단.

그림1 '26년 금리 레벨 높은 여전채는 순상환 상태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5년말 대비 카드채 및 공사채 신용 스프레드 확대폭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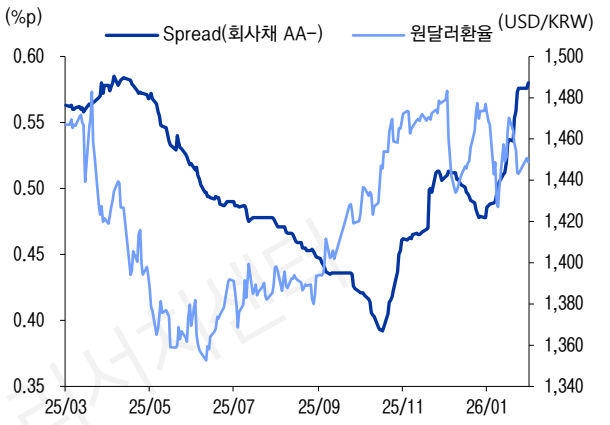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국고채 금리(3Y) 및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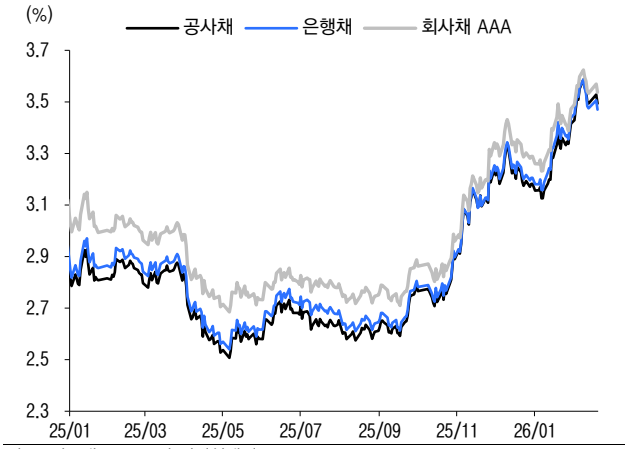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3Y) 및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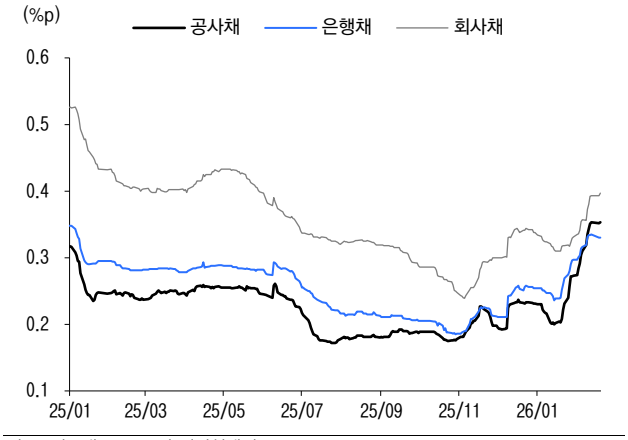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AAA 등급(3Y)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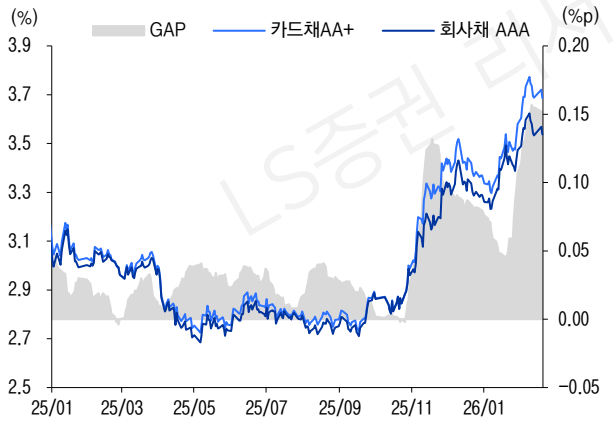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AAA 등급(3Y)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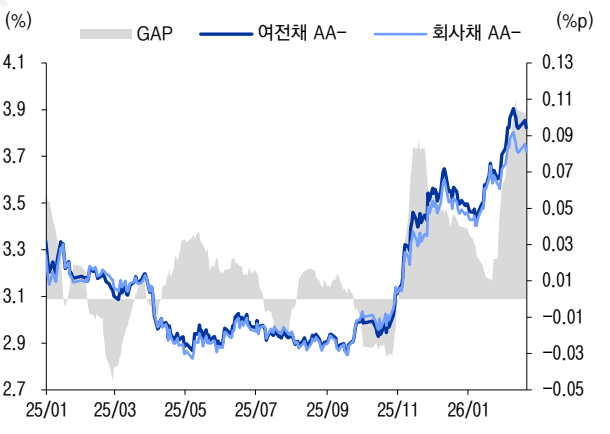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회사채(AAA, 3Y) 금리 vs 카드채(AA+, 3Y) 금리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회사채(AA-, 3Y) 금리 vs 캐피탈채(AA-, 3Y) 금리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조수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